

신뢰받는 행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의정단상

박수기

광주시의원



지난주 최고의 이슈는 단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이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마주앉은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며,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해묵은 지역 현안이었던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신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대감이 부른 상황에서 광주시로서 가장 아픈 대목은, 바로 김산 무안군수가 지정한 '행정의 신뢰' 문제였다. 이 불신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됐고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도 그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으로서의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과제를 남겼다.

현장에서 김산 무안군수의 발언을 통해 복기해보면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2020년, 그리고 강기정 시장이 다시 2023년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군공항 이전만을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것. 1조 원에 달하는 이전 지역 지원도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중요한 가치다. 그것을 뒤집을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 치러왔던 갈등,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까지 따져본다면 더욱더 그 가치는 중요해진다.

김 군수가 지정한 불신은 비단 공항 이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광주시정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이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는 이미 2015년, 한국도로공사와 확장 사업에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필요한 필수 소요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 약속을 뒤집으려는 듯한 연구와 시도가 없었다 할 수 있었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과연 어떤가? 착공조차 못한 공사는 총사업비가 지난 10년을 지체하는 동안 자재비와 물가 인상 등으로 4배 이상 폭등했다. 전략적으로 국비 편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불신의 과정은 중앙정부 및 사업 상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의 숙원 사업을 장기 표류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 되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내부 사업에서도 신뢰의 위기는 마찬가지다. 수년째 이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행정 불신의 바로미터가 된 지 오래다. 강기정 시장은 2026년 개통을 약속했지만, 1단계 구간 개통은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장기간의 교통 불편과 안전 위협, 지장채의 끝없는 확대 등 시민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책임 있는 사과나 명쾌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 사업의 여파로 광주시 채무는 2조 원을 돌파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게 됐고, 채무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재정 위기 단계 지정이라는 경고등까지 켜졌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 '신뢰의 상실'로 귀결된다. 약속을 경시하는 행정, 일관성 없는 정책,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쌓여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막고 내부 사업의 동력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항 이전의 물꼬를 튼 지금이야말로 광주시가 행정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책임감 있는 실행으로 시민과 행정 파트너 앞에 다시 서야 할 때다.

社說

근본적인 변화 필요한 광주 상권 붕괴

지속가능 경제 체계 구축해야

광주광역시 구도심 상권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 거리와 충장로, 북구 용봉동 등 주요 상권에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며, 문을 닫은 상가와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린 가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한때 활기를 띠며 광주의 중심 상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점차 조용해지고 빈 상가들로 가득 차 있다.

광주 상권의 침체 현상은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소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 업종 포화, 경기 침체 등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청년층의 이탈은 소비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곧 상권의 침체로 이어진다. 광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상권의 부진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정주 여건의 문

제다.

청년층과 생산 연령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 상권의 유지뿐만 아니라, 신도시형 상권조차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단기적인 불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순환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대가 순환하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광주는 점차 '폐업 정리'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빈 상가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나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광주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정주 여건을 재정비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상가 임대료 지원과 같은 물리적 조치가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속출하는 폭염 피해, 선제적 대응 나서야

정부차원 장기적 대응 필요해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마져 종료됐다고 한다. 인간이 자초한 지구온난화 시대, 폭염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강도 또한 강해질 게 뻔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폭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 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도 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3일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산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 37억 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열 탈진 등 온열질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공식 집계된 온열질환자만 40여 명에 육박한다.

지난달 27일 올해 들어 처음 광주·

전남에 발령된 폭염특보는 일주일이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여수의 밤 최저기온이 26.8도, 광주 25.4도, 해남 25도 등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3일에도 광주를 비롯해 전남지역 대부분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숨 막히는 폭염이다. 폭염의 수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각각 12.7일과 18.4일로 평년에 비해 5.3일, 7.0일 많았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가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전남도가 지원하기로 한 단기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신속한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3일(현지시간) 그리스 크레타섬 이에라페트라 인근에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강풍에 휩싸인 산불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대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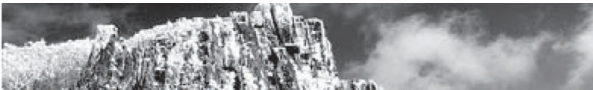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AFP 연합뉴스

서석대

1997년 개봉된 장자크 아노 감독의 '티벳에서의 7년'은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히 하러가 티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영적 성숙을 얻는 과정을 그린 실화 영화다.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히말라야 낭가 파르밋 원정을 떠난 하러. 강인함으로 상징되는 그는 흑한의 에베레스트에서 몇 번이나죽을 고비를 넘기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군 포로가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어렵게 티베트 라사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와 함께 했던 그 7년이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 줬다."는 게 하러의 회상이다.

달라이 라마는 '바다 같은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의미다. 티베트 불교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이면서 1959년까지는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도 했다. 달라이 라마의 선출과 정도 신화적이다. 정확히는 선출이 아니고 '찾아내기'다.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티베트 고승들은 어딘가에서 환생했을 새로운 후계자를 찾는다. 환생에 대한 단서는 꿈이나 자연 징조 같은 것들이다. 14대 달라이 라마인 지금의 텐진 가초는 그의 나이 2살 때 티베트 북동부 한 농가에서 발견돼 전임인 13대 달라이 라마 뉘텐 가초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평온했던 조국 티베트에 중국군이 침략해 오면서 100만 명



달라이 라마

에 이르는 동포의 죽음을 목격했고, 6000여 곳의 사원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금까지 티베트 자유를 위해 소신공양으로 목숨을 버린 승려도 200여 명에 이른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텐진 가초는 특유의 친화력과 합리적 사고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는 용서의 철학,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신념도 따듯하다.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가 오는 6일 90세 생일을 맞는다. 지난 2일에는 자신의 죽음 이후 환생으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앞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티베트에 '민족 단결'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따를 것을 압박했다. 사실상 다음 달라이 라마를 중국이 지명하겠다는 통보다. 평생 사랑과 용서, 평화를 위해 살아온 달라이 라마,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비폭력으로 독립을 요구해 온 티베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명맥은 유지될 수 있을까. 영화 '티벳에서의 7년'에서 달라이 라마는 걱정 많은 하러를 위로하려고 티베트에 내려오는 숙담을 소개했다. "어차피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은 걱정해도 소용없다"고. 이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주민에게 우리가 이 숙담을 들려줘야 할 것 같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